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분배공정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이병록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between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Burnout of Personnel in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Byoung-Rock L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고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전과 충남 지역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3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SPSS/AMOS 18.0을 활용한 확인적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이다. 분석결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분배공정성이 소진에 대한 영향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능력과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의한 보상, 투명한 보상체계의 구축, 비정규직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 요구된다. 둘째, 종사자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쉽 교육과 프로그램의 운영, 종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 슈퍼비전의 제공과 임파워먼트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분배공정성, 소진, 임파워먼트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influence of distributive justice on burnout and inspected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of personnel in rehabilitation facilities. We surveyed 321 personnel in facilities of Daejeon and Chungnam areas. The main methods ar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important analysis result is that distributive justice influenced burnout negatively and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was identified.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some measurements were proposed to reduce personnels' burnout. For increasing distribution fairness, compensation by objective evaluation of ability and workload,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irregular workers are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empowerment, leadership education for managers and operation of related programs, voluntary participation of employees in programs, provision of supervision and education of empowerment are needed.

Key Words :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Personnel, Distributive Justice, Burnout, Empowerment

\*Corresponding Author : Byoung-Rock Lee(brlee@konyang.ac.kr)

Received December 28, 2021  
Accepted March 20, 2022

Revised January 12,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 1. 서론

그동안 한국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차별적 환경과 비인간적 처우 등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1].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애인들의 지역 사회생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2].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상담과 치료, 훈련 등의 다양한 재활서비스와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있다[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장애인복지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5]. 종사자들의 인적자원 관리 중에서 소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소진이 훨씬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진은 심리적으로 무기력증과 의욕상실증세를 보이는 현상인데[7], 종사자들에게 정서적 어려움,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관심, 의욕상실 등을 유발시켜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된다[8]. 이로 인해 소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시된 소진의 영향요인은 개인적 특성과 직무환경을 비롯하여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등이다[9]. 한편, 분배공정성이 소진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배공정성은 종사자들이 자신의 노력에 비해 적합한 보상이나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지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10]. 종사자들의 낮은 분배공정성 인식은 직무스트레스, 사기저하, 부정적인 직무태도 등을 유발시켜 소진상태에 빠지게 한다[11]. 분배공정성과 소진의 영향관계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거의 실증되지 않았으며,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Park[12]의 연구와 근로자들을 조사한 Cho and Kwon[13]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분배공정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는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로서 담당직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과 목표에 맞추어 직무행동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다[14]. 종사자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열의가 감소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임파워먼트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15]. 분배공정성의 소진에 대한 영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조사한 Lee and Lee[16]의 연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Lim and

Kim[17]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은 종사자들은 업무의욕과 직무만족이 향상되고 직무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진의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18]. 두 변수의 영향관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Kim and Choi의 연구[9]와 요양보호사를 조사한 Kim[19]의 연구 등에서 증명되었다.

본고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배공정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첫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분배공정성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종사자의 분배공정성이 임파워먼트를 매개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분석모형

본고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배공정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분석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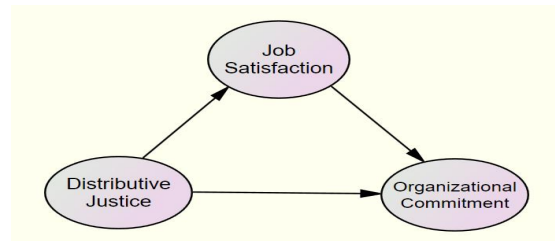


Fig. 1. Analysis Model

### 2.2 조사의 대상과 절차

본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 지역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상담원, 치료사, 특수교사 등이다. 시설에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조사를 허가한 경우에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임의표집방법이 적용되었다.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5일에 개시되어 20일에 종료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01명(31.5%), 여성 220명(68.5%)이다. 연령은 20대 89명

(27.7%), 30대 144명(44.9%), 40대 63명(19.6%), 50대 25명(7.8%)이다. 자격은 사회복지사 241명(75.1%), 특수교사 15명(4.7%), 치료사 65명(20.2%)이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275명(86.5%), 비정규직 43명(13.5%)이다.

### 2.2 측정도구

본고의 독립변수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의 분배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Eom[20]의 연구에서 제시된 문항들을 참조하여 7문항을 선정하였다. 척도는 분배공정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설정하였다. 다른 측정도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신뢰도 값( $\alpha$ )은 .947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의 측정도구는 Lee[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6문항을 제시하였다. 신뢰도 값( $\alpha$ )은 .846이다. 종속변수인 소진의 측정도구는 Kim[22]의 연구를 검토하여 5문항을 제시하였다. 신뢰도 값( $\alpha$ )은 .825로 산정되었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사한 설문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SPSS/AMOS 18.0을 이용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제시된 변수들의 특성 및 자료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와 다중공선성의 여지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검정을 실행하였다.

## 3. 분석결과

### 3.1 변수의 정규분포성 및 상관관계

본고의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값은 왜도 3과 첨도 10 미만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505~.590, 그리고 첨도는 -.493~.587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미하고 절대값을 기준으로 한 상관계수는 모두 0.7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3.2 모형검증

#### 3.2.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었다. 측정모형 적합도  $\chi^2=516.774$ ( $df=132$ ,  $p<.001$ ), CFI=.908, IFI=.908, RMSEA=.095로 산출되어 적합한 수준이다. 측정변수들의 표준화의 요인부하량 값이 모두 .5이상으로 산출되었고 C.R.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모형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Measurement model

		Estimate		S.E.	C.R.
		B	$\beta$		
Distributive Justice	→ DJ1	.892	.715	.053	16.703 ***
	→ DJ2	.757	.642	.054	14.022 ***
	→ DJ3	.976	.920	.032	30.384 ***
	→ DJ4	.978	.934	.030	32.083 ***
	→ DJ5	.980	.927	.031	31.186 ***
	→ DJ6	1.016	.898	.036	28.059 ***
	→ DJ7	1.000	.933		
Empowerment	→ EP1	1.000	.530		
	→ EP2	1.602	.853	.163	9.802 ***
	→ EP3	1.627	.881	.164	9.922 ***
	→ EP4	1.357	.796	.143	9.503 ***
	→ EP5	1.209	.560	.156	7.756 ***
	→ EP6	1.185	.547	.155	7.637 ***
Burnout	→ BO1	1.000	.549		
	→ BO2	1.284	.724	.142	9.047 ***
	→ BO3	1.028	.660	.120	8.578 ***
	→ BO4	1.473	.826	.153	9.626 ***
	→ BO5	1.279	.740	.140	9.155 ***

$\chi^2=516.774$ ( $df=132$ ,  $p<.001$ ), CFI=.908, IFI=.908, RMSEA=.095  
\*\*\* $p<.001$

#### 3.2.2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결과가 Table 2와 Fig. 2에 나와 있다. 분석결과는 첫째, 종사자의 분배공정성이 임파워먼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133$ ,  $p<.05$ ). 이것은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이 증가하면 임파워먼트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임파워먼트가 소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350$ ,  $p<.001$ ). 이것은 종사자의 임파워먼트가 증진되면 소진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이 소진에 부(-)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 $\beta = -.347, p < .001$ ). 이것은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이 높아지면 소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최소값(-.074)과 최대값(-.003) 사이에 0이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이 임파워먼트를 매개하여 소진에 이르게 되는 경로의 총효과 -.394, 직접효과 -.347, 간접효과 .047( $p < .05$ )로 분석되었다.

Table 2.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Estimate		S.E.	C.R.
	B	$\beta$		
Distributive Justice → Empowerment	.068	.133	.031	2.197 *
Empowerment → Burnout	-.460	-.350	.096	-4.808 ***
Distributive Justice → Burnout	-.234	-.347	.043	-5.465 ***
Path	N.C.	S.E.	95%CI	
			Lower	Upper
Distributive Justice → Empowerment → Burnou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394	-.347	-.047*	

\* $p < .05$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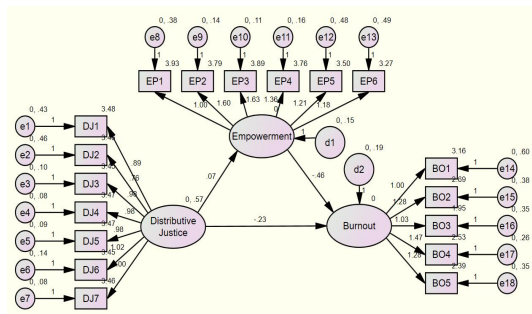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 4. 결론

본고에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이 소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 = -.347$ ). 둘째,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간접효과=.047).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과 임파워먼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첫째, 종사자들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업무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들을 연봉산정과 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0]. 둘째,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대한 분배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수준의 차이들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2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관리자들의 리더십이 종사자들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설관리자들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장과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함양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24]. 둘째,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결정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25]. 셋째, 종사자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임파워먼트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26].

본고에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자들의 분배공정성과 소진의 영향관계와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고는 종사자들의 소진에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소진을 완화시키고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편, 본 연구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소진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대책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 REFERENCES

- [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7).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everely-Mentally Disabled Living in the Welfare Facilities*,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2] D. C. Yu. (2021).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upport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abled.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70, 269-292. DOI : 10.47042/ACSW.2021.02.70.269
- [3] J. Y. Yoon, S. W. Jang & H. J. An. (2017). Service Environmental Change and Its Response Strategy of

-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in Seou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37, 89–113.
- [4] B. R. Lee.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the Coworker Relations and the Burnout of the Professional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6), 217–223. DOI : 10.15207/JKCS.2021.12.6.217
- [5] Y. S. Youn, S. Y. Cho, Y. C. Byun & G. C. Song. (2019).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among Rehabilitation Specialis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1), 559–573. DOI : 10.5392/JKCA.2019.19.01.559
- [6] S. J. Kim & J. H. Seol. (2012). The Effect of Work Environment Factors of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on the Employees Burnout.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3, 61–88. DOI : 10.15300/jcw.2012.12.43.61
- [7] H. J. Lee. (2021). Correlates of Job Stress, Burnout and Presenteeism among Long-term Care Worker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78, 93–113. DOI : 10.15300/jcw.2021.78.3.93
- [8] J. S. Kim. (2021). The Effects of Client Violence on Burnout of Elderly Care Facility Work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Risk Management Syste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1), 39–54. DOI : 10.22143/HSS21.12.1.4
- [9] J. Y. Kim & Y. Y. Choi. (2021). Self-Efficacy effects on Job Burnout of Workers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Centers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mpower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5), 86–93. DOI : 10.22156/CS4SMB.2021.11.05.086
- [10] D. S. Chun & Y. M. Yoo. (2021). A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Focusing on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Journal of Public Society*, 11(3), 215–240. DOI : 10.21286/jps.2021.08.11.3.215
- [11] Y. E. Kim & J. S. Sin. (2012).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the Job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16(3), 5–26.
- [12] H. S. Park. (2019).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Psychological Burnou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6), 1215–1232. DOI : 10.22251/jlcci.2019.19.16.1215
- [13] S. W. Cho & S. S. Kwon. (2014). The Differential Effects of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on the Stress and Burnout.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7(6), 2755–2780.
- [14] Y. S. Eo & G. Y. Cho. (2010). Job Characteristics and Compensation Justice Influences with Empowerment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1), 227–239.
- [15] C. J. Lee & S. G. Kim. (2008). The Factors Influencing Empowerment of Social Worker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7, 29–51.
- [16] J. P. Lee & J. B. Lee. (2018).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Perceived by Community Child Center Worker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National Counseling Welfare Research*, 2, 1–32.
- [17] G. S. Lim & S. Y. Kim. (2013). A Study of factors that Influence Empowering of Home-based Caregiver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41, 151–188.
- [18] H. K. Seo. (2017). The Effects of Empowerment on Teachers' Psychological Burnout.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3(3), 55–86. DOI : 10.35637/klehd.2017.13.3.003
- [19] Y. C. Kim. (2020). Effect on the Burnout of Nursing Care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1), 590–602. DOI : 10.5392/JKCA.2020.20.11.590
- [20] S. H. Eom.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ocial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21] J. B. Lee. (2019).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f Empowerment*. Unpublished Doctoral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22] D. H. Kim. (2020). *Effects of Toxic Leadership of Sales Manager 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Salesperson*. Doctoral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23] J. S. Kim. (2020).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Fair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on-regular Social Worker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2(1), 219–245.
- [24] D. N. Lee, C. B. Cho & J. H. Kim. (2021). The Influence of Authentic Leadership of the Facility Superintendent and Middle Manager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Seni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3(1), 1–31. DOI : 10.22944/kswa.2021.23.1.001
- [25] S. Y. Kwak. (2019). The Effect of Empowerment of the Worker in Sheltered Workshop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5, 137–163. DOI : 10.22779/kadw.2019.45.45.137
- [26] J. Y. Lee & E. M. Choi.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in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1), 595–606. DOI : 10.22143/HSS21.9.1.47

이 병 록(Byoung-Rock Lee)

[상위]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 E-Mail : brlee@konyang.ac.kr